

# K-조선, 기술력 강화·대규모 수주로 해양플랜트 ‘다변화’

유가 상승에 해양플랜트 사업 재조명  
인수합병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HD현대중, 중동 대형수주 확장  
삼성중, FLNG 수주로 재도약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해양플랜트 사업에도 집중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10일 영국조선해운시황 전문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해상석유 및 가스는 지난 2023년 기준 전 세계 에너지공급의 16%를 차지했으나 오는 2030년 1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이 해양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선박을 건조하거나 석유, 가스 등 해양 자원 개발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건조·설치·공급하는 산업이다.

특히 해양플랜트는 한 기당 계약금액이 1조~4조원에 달하며 1기당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경험치 등이 선박보다 많이 유교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분류된다. LNG운반선 신조가가 2억 6200만달러(한화 약 3200억원)인 것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HD현대중공업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과거 해양플랜트는 조선업계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지난 2010년 이후 고유가 시대 조선사의 매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나 2015년 유가가 급락하며 매출 비중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공정 지연과 계약 취소 등이 잇따르며 큰 손실을 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에 나서면서 해양플랜트가 재조명받고 있는 모양새다.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기업 다이내믹 홀딩스(Dyna-Mac)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섰다. 다이내믹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생산거점 2곳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한화오션의 계획대로 다이내믹홀딩스를 인수하면 해양플랜트 사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 하역설비(FPSO) 및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등 해양플랜트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해양플랜트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중동 발주처로부터 해상플랫폼의 상부 구조물 1기를 1조5337억 원에 수주했다. 회사는 지난 1983년부터 40년 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난 2016년부터 해양과 플랜트 부문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월 캐나다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확보 사업 ‘시더(Cedar)’에 입찰해 FLNG 1기를 수주했다. 직전 수주는 지난 2022년 12월 아시아지역 선주와 체결한 계약이었다. 1년 이상의 공백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계약을 시작으로 연 1,2기의 FLNG 수주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설계(FEED) 단계에 참여 중이거나 개발 단계에 있는 입찰 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사업이 조선업계에 중요한 분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해양플랜트 중심의 발주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사들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TSMC

### 3분기 매출 전년비 39%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3분기 잠정실적에서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는 체질 개선을 통한 혁신 토대 마련에 서두를 전망이다.

10일 TSMC가 9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한 2518억 대만달러(10조 5529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9월 매출과 앞선 7,8월을 합산한 3분기 잠정 매출을 7597억 대만달러(31조 7400억원)다. 시장 전망 평균치였던 7480억 대만달러(4200억원)를 압도했다.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고 직전분기 매출인 6735억 대만달러와 비교해도 12% 늘었다.

TSMC는 17일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포함한 전체 세부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 항공기 공급난 속... 동계시즌 대비 ‘기재확보’ 총력

항공업계, 보잉 파업 등 기재 확보 난항  
기재 도입 병목현상에 대어·구매 병행  
“추가 항공기 도입 계획 차질 없어”

항공업계가 여객 수요 회복에 발맞춰 기재 도입에 집중하고 있지만 항공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항공기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국적사가 신규 등록한 항공기는 저비용항공사 10대, 대형항공사 7대다. 국제선을 중심으로 여객 수요 확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항공기 추가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시기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를 감축했다. 하지만 엔데믹 선언 후, 국적사·외항사 모두 항공기 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병목현상이 일고 있다.



보잉사 공장 제조 라인에서 737 맥스기의 제작이 한창인 모습이다. /뉴시스

항공기 제작사, 부품 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인력 감축에 나섰고, 현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생산 자체도 더딘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 보잉에서 노동조합 파업이 일어나 항공기 생산이 파비됐다. 이에 국내 항공사의 기재 도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이 보잉사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항공은 737맥스 30대를 인도받기로 계약했다.

2024년 10월 기준 대한항공은 A321-200NEO 2대, B787-10 2대, B787-9 1대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A321-200 NEO 1대를 지난 5월 도입했다.

LCC 업체에선 이스타항공이 B737-800 항공기를 4대를 새로 도입해 가장 많았다. 에어부산 A321-200 NEO 1대, 티웨이항공 B737-800 2대, 에어로케이 320-200 1대 등을 도입했다. 하

지만 국제선 중심으로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항공기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동계 시즌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노선 확대에 나섰다.

제주항공도 하반기 중 추가 기단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항공기 대여료의 환율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구매해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보잉사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어 파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유럽 노선에 진출한 만큼 대한항공으로부터 A330-200 항공기를 5대 대여했다. 추가로 장거리 노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A330-900 NEO 항공기를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성 기자 iunm@s

## LG CNS

### 구글 ‘생성형 AI 전문기업’ 아시아 최초 인증 받아

LG CNS가 아시아 최초로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 전문기업(Generative AI Service Specializ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글 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전문기업 인증은 각 기술 분야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 사례, 임직원의 기술 역량 등을 검증해 부여하는 자격이다. 구글 클라우드의 전문기업 인증에는 20여개 분야가 있으며, 지난 7월 생성형 AI 영역이 새로 추가됐다. LG CNS는 생성형 AI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은 LG CNS가 구글 클라우드로부터 받은 다섯 번째 인증이다.

/김서현 기자

## SKT

### 고령 고객 안전통신 지원 “사이버범죄보험 1년 무료”

SK텔레콤이 시니어 고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 생활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전국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자에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프라인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공식인증대리점이 단순히 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했다.

시니어 고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디지털전환 돕는다

CJ올리브네트웍스, GDC 사업 수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아모레퍼시픽의 차세대 글로벌개발센터(GDC 2.0) 운영 사업을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GDC(Global Development Center)는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12개 국가 대상 고객관계관리(CRM) 운영, 미들웨어 구축, 인공지능(AI) 프로젝트 수행 등 IT서비스는 물론 국가별 현지화 및 운영 안정화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한다. 아모레

퍼시픽은 CJ올리브네트웍스의 베트남 개발센터를 활용해 GDC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 GDC 1.0에 이어 2025년부터 고도화하는 차세대 GDC 프로젝트 수행사로 CJ올리브네트웍스를 선정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안정적인 IT서비스와 국내 개발인력 대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최적화된 운영비용 등 성과를 높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GDC 2.0은 기존 GDC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최적화로 IT투자 비용 절감을 극대화한다.

/김서현 기자 seoh@

## 영국서 EV 타이어 기술력 선보여

한국타이어, ‘EES 사우스’ 참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영국에서 개최되는 전기차 전사회에 참가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국타이어는 이달 11~13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전기차 전시회 ‘에브리싱 일렉트릭쇼 사우스(EES South)’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EES 사우스는 영국 전기차 전문 매체 ‘폴리차지드’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영국 햄프셔주 판버러에서 진행된다. 한국타

이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최초로 ‘폴 라인업’을 갖춘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의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시장 내 부스에서는 체험존, 이벤트존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 판매 중인 ‘아이온’의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퍼포먼스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올웨더 타이어 ‘아이온 플렉스클라이밋’ ▲여름용 타이어 ‘아이온 GT’ ▲SUV 전용 롱마일리지 타이어 ‘아이온 ST A S’ 등이 전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